

광주FC, 안양 상대 7연속 무패행진 도전

내일 안양 원정... 최근 4승 2무
‘3월 멀티골’ 아사니 연속골 도전
빠른 발 바탕 ‘중원 싸움’ 승부처



광주FC가 FC안양을 상대로 무패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상대 전적은 4승 2무로 광주FC가 압도하고 있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안양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지난 2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둔 광주는 비록 승점 3점을 얻진 못했지만, 공격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소득을 챙긴 경기였다.

광주가 자랑하는 공격 듀오 아사니, 헤이스는 내내 번뜩이는 활약을 펼치며 각각 1골 1도움과 1도움을 기록했고 여기에 후반전 교체 투입된 공격수 박인혁까지 골 맛을 봤다.

특히 지난 3월 1일 3라운드 안양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해 광주를 승리로 이끌었던 아사니는 2경기 연속골 도전하며 공격 선봉에 설 전망이다.

예열을 마친 광주의 공격진은 이제 안양의 골문을 겨냥한다. 마침 안양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1경기 이상일 수 있어 이들의 선전은 여느 때보다 고무적이다. 현재 광주는 리그 7승 7무 6패(승점 28), 6위를 질주하고 있다. 상대 안양은 7승 3무 10패(승점 24), 9위에 자리하고 있다.

리그 내 상·하위권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 속 K리그2를 포함해 상대전적에서 4승 2무로 압도하고 있는 광주가 이번 경기로 승점 3점을 얻는다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위권 안양을 필두로 한 7~12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7월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심지어 안양은 지난 19라운드까지 3경기 연속 무승을 달렸고 20라운드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도 0-1로 패배하는 등 분위기가 한껏 내려앉았다.



광주FC가 오는 28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FC안양과 원정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광주FC 박인혁이 22일 대전하나시티즌과 홈 경기에서 득점한 뒤 세레머니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위기가 한껏 내려앉았다.

또 전·후반과 상관없이 ‘강공 축구’를 선보이는 광주는 안양이 지난 20라운드

김천상무와의 경기 양상과 비슷하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천은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중원 싸움에서 안양보다 앞서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고 이에 안양은 계속해서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광주는 안양전을 끝낸 후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 7월 18일까지 리그 경기가 없다. 7월 2일 울산HD와 코리아컵 8강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숨 가뻔했던 5, 6월과 비교할 때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6월 마지막 경기에서 총력전으로 임할 광주는 안양을 잡는다면 좋은 분위기를 7월로 이어감과 동시에 남은 일정 준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광주는 지난 수년 동안 안양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안양과 치른 6경기에서 모두 패하지 않았을뿐더러 최근 10경기로 넓히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안양 상대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가 좋은 기억을 되살려 안양을 누르고 상위권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FC, eK리그 대표 선발... “팬과 선수가 한 팀”

내달 4일 첨단서 16강 진행
최종 2인...선수와 함께 대회

프로축구 광주FC가 선수와 한 팀이 되는 특별한 무대에 나설 대표를 선발한다.

광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넥슨이 주관하는 ‘eK리그 서포터즈컵 2025(이하 eK리그)’에 구단 대표로 나설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eK리그는 EA SPORTSTM FC Online(이하 FC 온라인) 기반의 e스포츠 축구 대회로, K리그 팬들과 선수가 한 팀을 이루는 특별한 e스포츠 대회로 광주는 해당 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4일 광주광역시 월계동에 위치한 ‘레드포스PC아레나 첨단점’에서 구단 대표 선발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를 진행하는 레드포스PC아레나는 지역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자랑하는 매장으로, 국내 PC방 브랜드 최초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e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번 선발전은 1vs1 단판 토너먼트 방식의 16강전으로 진행되며 24일부터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광주 팬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광주 팬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참가해야 하며 FC 온라인 프로 선수 및 비매너 제재 이력 과다 보유자, 군복무 중인 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2인은 다음달 14일 본선 대회에 광주 소속 선수 1명과 함께 나서게 되며, 내달 28일 열리는 4강전부터는 오프라인 스튜디오에서 현장 맞대결을 펼친다.

선발전 최종 1위에게는 구단 유니폼 및 넥슨 캐시 120만 개시를 증정하며 2위에게는 구단 유니폼 및 80만 캐시, 3위에게는 40만 개시를 증정할 계획이다. 이외 참가자 전원에게는 20만 개시를 증정한다.

광주FC 관계자는 “우리 구단의 선수와 팬이 한 팀이 되어 대회를 치른다는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FC 온라인을 즐기는 광주 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부상’ KIA 김도영, 올스타전 못 뛴다... 대체 선수 누구

규정상 차점자 송성문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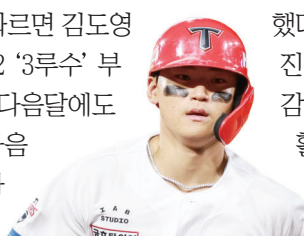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의 간판 스타 김도영(사진)이 부상으로 프로야구 올스타전 불참이 확실시 되면서 대체 선수가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KIA 관계자에 따르면 김도영은 나눔 올스타 베스트12 ‘3루수’ 부문에서 1위에 올랐지만, 다음달에도 햄스트링 부상 재활로 다음달 12일 진행되는 올스타

전에 불참한다. 이에 대체 선수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도영은 올스타 후보로 이름을 올릴 당시에는 부상이 아니었기에 투표가 진행됐고 나눔 올스타 베스트12에 압도적인 지지로 총점 27.7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김도영은 당장 재검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시간과 추가 재활이 필요할 수 있다.

리그 규정에는 올스타전 출



전이 불발돼 선수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포지션 차점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나눔 올스타 3루수 부문 2위는 송성문 24.85점, 한화 노시환(21.85점), LG 문보경(19.66점), NC 서호철(6.66점)이 뒤를 이었다. 송성문은 26일 오전 기준 78경기에서 타율 0.271(299타수 81안타)와 함께 10개의 홈런, 39타점 42득점 10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83으로 활약 중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스타 선정 가능성이 열렸다. **민현기 기자**

‘FIFA 징계’ 광주FC, 몰수패 모면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몰수패 위기에서 벗어났다.

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금지 징계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FIFA는 추가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광주가 국내에서 치른 경기의 선수 등록, 출전 자격 등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번 서한을 통해 전했다.

이에 광주는 올 시즌 치른 국내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서한에는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대한축구협회)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징계가 가능성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언제까지 축구협회가 소명하라, 어떤 자료를 내라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리오넬 메시, 3년 연속 MLS 연봉 1위... 총액 278억원

부스케츠 2위, 인시네 3위 이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의 연봉 최고봉에는 올해도 이변없이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올랐다.

25일(현지시간) 메이저리그사커선수협회(MLSPA)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한 2025년 연봉 자료에서 메시가 2044만6667달러(약 278억원)로 3년 연속 리그 최고 연봉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메시의 기본 연봉은 1200만달러로 연봉 총액은 2025시즌까지 적용되는 MLS 계약, 마케팅 보너스 및 에이전트 수수료가 포함된 액수다. 다만 팀이나

계열사와의 추가 계약이나 성적에 따른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메시의 연봉 총액은 MLS 30개 구단 가운데 21개 팀의 보수 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MLS 선수의 평균 기본 연봉은 64만 9120달러로 지난해 5월 발표(59만4389달러) 때보다 9.2% 늘었다.

메시가 버틴 마이애미는 4684만달러로 역대 최고 연봉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말 발표 때는 4170만 달러였다. 마이애미의 연봉은 2위 토론토 FC(3415만달러)와 3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2763만달러)를 제외한 MLS 27개 팀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FC 신시내티(2318만 달러), 로스앤젤레스(LA) 갤럭시(2287만 달러), LAFC(2237만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고 CF 몽레알이 1199만달러로 가장 적다.

MLS에서 메시 다음으로 연봉이 높은 선수는 토론토의 윙어 로렌초 인시네로 1540만달러를 받는다.

마이애미의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877만달러)가 세 번째다.

MLS 전체 계약 선수 902명의 연봉 총액은 5억8600만달러로, 지난해 초(5억1900만달러)와 비교해 12.9% 증가했다. **민현기 기자·연합뉴스**